

소강(小崗) 민관식 회장님을 추도하며

글 | 조완규 _ 한국바이오산업협회 회장, 과총 명예회장



회장님은 시대가 낳은 영웅호걸이었다. 평생 멋지게 사시더니 가시는 것도 그러했다. 어려서 싸움꾼이었다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낙제도 했었다는 말씀을 자주하셨다. 어렸을 때 미운 놈 골탕 먹이기도 했었겠지만, 일본 학생을 패주는 재미도 있었을 것이다. 평생 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의감은 미수(米壽)를 지나서도 달라지지 않으셨다. 몹시 결백하고 단호한 어른이어서 일단 눈 밖에 나면 용서하지 않으셨다.

우리 나라 최초로 법학박사학위 취득

1918년 개성에서 태어난 민 회장님이 일제 때 경기고와 수원고 등농업학교 졸업 후 일본 교토대학(농예화학)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장학금을 대준 당시 조선일보 방응모(方應模)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 때문에 가능했으며,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 은인 중 한 분이라며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곤 했다. 민 회장님은 해방 후 공비에 피살된 백씨 민중식(閔重植)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957년 '중산육영회'를 설립하고, 그 뒤 50년 동안 매해 어려운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제 그 수가 1천 명이 훨씬 넘는다.

그 뒤 민 회장님은 30대초에 초선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1979년 10.26을 맞아 해산 국회의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혼란에 빠진 시국을 수습하는데 비상한 수완을 발휘하셨다. 1971년부터 74년까지 최장수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고교평준화 개혁을 성공시켰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오늘날 사립 교원의 연금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매해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소강배 테니스대회'를 주관했으며, 다수의 국가대표급 테니스 선수를 배출하는 등 테니스 붐을 선도하셨다. 또한 민 회장님은 1974년 '아세아정책연구원'을 설립, 외국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자주 개최하기도 하셨다. 한편, 5.16 군사혁명 후 이를 반대했던 회장님은 도일하여 모교인 교토대학에서 우리 나라 사람로는 처음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 체육계, 약사계 발전 주도

민 회장님은 1978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으로 추대되어 취임하셨다. 당시 과총은 정부 배려로 강남에 회관은 건립되었으나, 재외과학기술자의 모국방문 학술행사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위탁할 정도로 인력도,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빈약한 단체였다. 민관식 회장은 과총 회장이 되면서 모국방문행사를 주관하기로 결단하셨다. 민 회장님은 당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필자에게 학술위원장의 직책을 맡겼고, 그 동안 KIST가 주관하여 개최했던 학술행사를 서울대학교로 옮겨 성대하게 치렀다. 이 행사로 과총은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재외 동포과학기술계의 신뢰를 얻게 됐다. 민 회장님의 결단으로 비로소 과총은 설립명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이어지는 모국방문행사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나아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색이 짙은 민간단체의 장을 교체하려는 김새가 보였다. 민 회장님은 과총 회장의 임기를 3



년 단임으로 하는 정관개정을 제안해 확정하였다. 자리를 미련 없이 걷어차고 나온다는 것은 속인(俗人)으로는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민 회장님은 회원의 환대와 존경을 받으며 명예롭게 회장직을 마치고 후진에게 그 직을 물려주었다.

과총 구건물 뒤의 과총 부지에 신관을 건립하는 일은 역대 회장의 소망이었다. 회장 퇴임 후 민 회장님은 한국과학기술회관건립기성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기금 모금을 위하여 직접 정부, 기업체의 장을 찾아다니며 결국 수십억 원이 드는 건립비용을 조달하셨다. 오늘의 신관 홀 안에는 당시 한국과학기술회관건립기성회 회장 명의로 건립경위를 적은 글이 남아 있다. 과총이 50년, 100년, 혹은 그 뒤 계속 이을 역사에 민 회장님의 이름 석자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의 과총 발전은 바로 민 회장님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민 회장님은 약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약사의 지위 향상에 절대적 기여를 하셨다. 또 1964년 이래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봉직하면서 태릉선수촌 건립, 역대 올림픽 출전선수양성, 올림픽유치 등 우리 나라 체육 역사에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다. 결국 민 회장님의 일생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체육계, 약사계, 그리고 과학기술계 발전과 행보를 같이 했던 것이다.

전시실 소장품은 근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

민 회장님이 가장 아끼셨던 것은 댁에 소장된 전시물일 것이다. 소년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그리고 시간마다의 기록이 전시실에 소장, 기록되고 있다. 어떤 선물이든 혹은 어디서 수집한 것이든 거의 모두가 이곳에 소장되고 있다. 또 참가한 어떤 행사라도 그때 얻은 명패, 혹은 회식 때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람의 이름 등을 식단표에 적어 보존한다. 민 회장님의 소장품을 관람하노라면 까맣게 잊었던 지난날 행사, 혹은 사건의 그때그때 모습이 나

정황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처럼 민 회장님은 기록문화가 희박한 우리에게 역사의를 일깨워준 분이기도 하셨다. 민 회장님의 소장품은 우리 나라 근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민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면 모두 경험했겠지만, 가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다. 사진 뒷면에는 찍은 날짜와 함께 친필로 적은 몇 줄 글을 볼 수 있다. 물론 겹봉에 적힌 주소도 민 회장님 친필이다. 사무실에 비서가 있지만 절대 그들에게 대서를 맡기지 않으셨다. 매해 연하장을 보낼 때도 친필로 몇 자 덕담을 적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또 민 회장님의 일기수첩을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뽁뽁이 적힌 일정으로 꽉 차 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부지런하고 바쁜 하루를 보낸 민 회장님을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 내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일화·혁혁한 족적,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

지난 1월 16일 아침 타계하셨다는 민 회장님의 부음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 미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건강에 유념해 백수(百壽)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한 시간 이상 걷고, 한 시간 이상 수영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테니스를 치면서 건강을 자랑해 오신 까닭에 더욱이 그러했다. 민 회장님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매번 강조하셨다. 건강에 해롭다며 적극적으로 금연을 권했고, 마약퇴치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하셨다. 건강에 애쓰시는 이유를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다. 민 회장님은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다. 병석에 누워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애당초 싫으셨던 것이다. 전날까지도 친구 분과 회식하고 운동하는 등 평상적으로 하루를 보내셨고 밤에 잠들면서 조용히 영면하셨다. 아무 미련도 없이 조용히 현세를 마무리하고 저승으로 가셨으니 유가족들은 홀연히 가신 것이 못내 서운하였겠지만, 이 얼마나 멋있는 마감이신가.

민 회장님이 멋있는 삶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미망인 김영호(金英浩) 여사님의 내조의 힘이 컸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식단을 마련해 정성들여 보살피신 김 여사님의 숨은 공로는 적게 평가할 수 없다. 김 여사님의 수고 없이 전시실 소장품 정리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 회장님은 그 많은 일화를 남기시고 여한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러나 민 회장님이 남기신 여러 분야의 혁혁한 족적은 우리 나라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민

